

“국가AI컴퓨팅센터 최적지 광주...AI 인프라 집적해야”

광주시·AI사업단·조인철 의원 공동주최...국회 AI 정책 토론회 개최 인프라·기업·인재 삼박자 갖춘 광주...AI 강대국 도약 가능성 높아

정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 조기 개소 등 인공지능(AI) 사업의 집중투자를 예고하면서, AI인프라와 인재, 기업 등 삼박자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시가 AI 투자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시는 그동안 AI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유치에 집중해 왔으며,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인재, 기업 등 풍부한 산학연 협력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기정 광주시장의 강력한 AI사업 추진 의지와 실증사업 확장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멀티모달 AI시대, AI 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광주시의 강점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와 조인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오상진 AI사업 단장을 비롯한 조인철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간사인 김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훈기·정진욱·양부남·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관, AI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이날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가 더욱 공고화된다면 대한민국이 AI강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에 동력을 더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며 "국회도 지난해 AI기반 조성에 집중한 제정법을 마련한 만큼 민간의 독자적 AI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심껏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세계 AI 주도권을 쥐기 위한 즉각 실행이 가능한 준비된 도시"라면서 "현재 인프라, 인재, 기업을 핵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AX실증벨리에 더해 초거대AI로 나아가갈 체비도 마쳤다. 지금 광주가 하는 AI산업은 비단 광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세계의 AI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속도와 집적이며, 국내 H100의 절반을 보유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AI인재양성 사다리를 갖춘 광주야말로 국가 AI컴퓨팅센터 설립 최적지"라면서 "AI 2단계 사업을 위한 예타 면제와 슈퍼주요인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경훈 LG AI연구원의장 'AI주권 확보, 인프라 확보 등 광주 혁신거점 협력방안'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배 연구원은 "AI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인프라, 기술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한다"며 "광주시에 이미 완료한 AI 1단계 사업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윤석주 페르소나 AI 최고브랜드리자(CBO)는 "광주 AI인프라 지원을 통한 한국형 AI기술개발 주제 사례발표에서 "광주는 기업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인 AI데이터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실증사업 지원, 지역 한계를 벗어난 대기업과의 연계 기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AI기술 발전에 따른 선점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혁신 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인철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정진욱·양부남·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은 속도가 핵심인데, 선순환하는 광주시의 지역AI 일자리 구조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기업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을 좌장으로 김현철 MBC 미래성장국장, 공덕주 지스트(GIST) AI정책전략대학원 부원장, 김경만 인공지능거점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기업·학계·공공 부문별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공덕주 부원장은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과 광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 5년간 광주는 인프라를 깔고 인재를 키우고 기업을 모으며 AI산

업을 준비해왔고, 대한민국 어떤 곳도 이같이 준비된 곳은 없다. 광주는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2023년 국가AI데이터센터를 개관했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77종의 실증장비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 산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현재까지 총 263개의 AI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공지능사관학교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등 뿌리부터 탄탄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오는 2027년에는 AI영재제도도 개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대자보 도시' 구체화...시민공감 이끌어낸다

전담팀 구성...홍보·교육 등 추진

광주시가 관계 기관과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고광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자보도시' 광주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시민 공감대 확산과 관계 기관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광주시·광주교통공사·광주연구원·광주기후에너지지원원·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공공기관과 5개 자치구, 광

주경찰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별별 대자보 챌린지' 진행, 광주 G-패스 등에 대한 홍보 콘텐츠 확산,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기관들도 대자보 공감 확산 및 실천 운동,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운수종사자 교육 과정 운영, 시민 실천단 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교통 정책 방향을 기존의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대중교통 비용을 할인·환급하는 광주 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2026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고 첨단자구에 자전거 생활권 시범지구 운영하며 자전거 도로와 안전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걷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동구형~조선대 사거리, 서석로, 금남로 차안거리, 광산길, 푸른길 등의 보도를 확대하거나 정비해 '걷고 싶은 문화전당 오방길'로 가꿀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항일독립유산 문화유산 지정 추진

광복 80주년...독립운동 가치와 의미 재조명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 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항일독립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것이다. 해당 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화하며,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신적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얼이 담긴 항일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도민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3월 31일까지 시·군, 도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항일독립유산 지정기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토위원회에서는 항일독립유산을 항일유적, 항일시설, 독립유물로 구분해 조사·발굴하고 이를 도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지정검토·심의하게 된다.

현재 항일독립유산 가운데 화산 쌍산 항일의병유적은 국가사적으로, 광주 학생운동지원지 나주역사는 전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김효석 전남도 문화유산정책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내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와 의미가 조망될 것"이라며 "도민과 후손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G-유니콘 기업' 연매출 63억 성과

광주시는 20일 "지난해 선발된 G-유니콘 기업 5개 사는 신규 고용 22명, 매출액 63억1600만원, 지식재산권 32건 출원·등록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중 재난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분야 인공지능(AI) 기업인 에니트는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고 생체정보 인증 기술 회사인 고스트페이스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친환경 미생물 농약을 개발하는 젠153바이오텍은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과 금융권의 창업 기업 사업에 선정됐으며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발사인 클라우드스톤은 인도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중고 명품 플랫폼 기업 팜파모 해외기업과 협약을 맺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